

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 ~ 1948년)

제1절 전후 국제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동향

목차	
1. 세계대전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	2
2. 노동운동 동향	16
이전의 추축국가	18
이전의 연합국가	20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 노동운동	21
아시아 국가	21
라틴아메리카	22
아프리카	22

※ 이 글은 미완성된 원고입니다. 추후 수정 및 보완될 예정이므로, 외부에서 발표하거나 인용하지 말아주시십시오.

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 ~ 1948년)

제1절 전후 국제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동향

“20세기는 유사 이래 가장 잔인한 시기였다. 20세기는 전쟁만이 아니라 혁명, 그리고 제국의 붕괴를 그 특징으로 하는 세기였다.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나 해방투쟁은, 특히 냉전 시기에는 국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오늘날에는)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은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로 볼 때 선전포고와 더불어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평화조약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그 뒤로 고전적인 의미의 전쟁과 평화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이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냉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Hobsbawm (2007, 20 ~ 21).

1. 세계대전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을 위시한 추축국¹⁾의 치명적인 패배로 끝났다. 6년 동안 진행된 세계대전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져왔고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았다. 전쟁 때문에 5,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 기간에

1) 추축국(樞軸國:Axis-Powers):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과 싸웠던 나라들이 맺은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1936년 10월 25일에 맺은 우호 협정이 기초가 되었다. 무솔리니는 두 나라가 유럽과 세계의 국제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추축(樞軸,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여기에서 추축국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외에도 일본,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라크, 핀란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만주국 등이 추축국에 속한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프랑스 군

소요된 총비용은 3조 달러²⁾(김종현 2007, 528)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다. 실상 그와 같은 피해는 참혹한 인류사의 비극과 ‘탐욕의 끝’을 적나라하게 드러

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국제정세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 변화를 가져왔고, 또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함에 따라 민족해방투쟁 전개를 위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사회주의 진영이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아메리카합중국: USA)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USSR)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날카로운 대결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두고, ‘세 개의 세계’ 또는 ‘세 가지의 구조 변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를 세 축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첫 번째는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체제 재편이다. 미국 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미 사실상의 중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의 경제력 확장은 자체 영토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그 세력도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산업·금융·군사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장악하였다.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쟁 기간에 총력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반면, 미국은 연합국에 대한 군수물자 공급국으로서 완전고용을 이룩하고 생산

2) 참전국의 전쟁 비용이 1조 1,170억 달러였다는 설명도 있다(Alexandrov 1986, 692).

력 증대를 피하면서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세계의 공업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8년의 36.3%에서 1948년에는 53.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1938년의 13.0%에서 1948년의 21.9%로 신장하였다.

〈표 1-1〉 전후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지위 변화

단위: %

	공업생산				수출			
	1938	1948	1953	1958	1938	1948	1953	1958
미국	36.3	53.4	51.5	43.7	13.0	21.9	18.9	16.4
영국	13.8	11.4	10.4	10.2	10.3	11.5	9.0	8.8
프랑스	5.7	4.1	3.8	4.8	3.7	3.7	4.9	5.0
서독	11.5	3.7	7.4	9.8	—	1.4	5.7	8.5
네덜란드	1.8	1.3	1.4	1.5	2.5	1.8	2.6	3.0
이탈리아	4.1	2.8	3.3	3.9	2.4	1.9	1.8	2.4
캐나다	2.2	3.3	3.1	2.9	3.7	5.4	5.1	4.6
일본	3.6	0.9	2.1	3.4	4.7	0.5	1.5	2.7

자료: 宮崎犀一 외 1981, 『近代國際經濟要覽』, 138. 144, 이대근 1993, 179에서 재인용.

주: 공업생산은 1948년도 미국의 달러로 환산한 부가가치에 의거한 것임.

수출은 달러로 환산한 F.O.B(본선인도 가격)가격기준임.

미국은 세계 석탄 생산량의 2분의 1을 생산하고 있었고, 세계 석유 생산량의 3분의 2를, 전력의 2분의 1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미국의 생산능력은 조선·항공 산업·자동차·무기·기계기기·화학공업 등의 경우에도 실로 막강하여 다른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미국의 생산능력에는 미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 지위는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보 1987, 270).

미국은 이와 같은 생산력을 토대로 하여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건과 부흥을 주도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³⁾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⁴⁾은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건을 위한 기본 수단이었으며, 유럽

3) 세계무역안정을 목적으로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튼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이다. 2011년 기준 가입국은 총 188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칭으로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조인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다국 간 협정과 그것에 따른 국제기관이다. 협정은 자유롭고 무차별적이고 다각적인 무역의 확대·발전을 목적으로 수입 제한 폐지와 관세 경감 등을 촉진하였다. 1948년 발효되었다.

부흥계획(마셜 플랜: Marshall Plan)은 유럽 자본주의의 부흥과 안정을 위한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이었다.

IMF는 무역과 외환상의 규제를 없애고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의 국제 교환성이 회복되고 외환관리가 철폐되어야 하며, 통화의 평가절하 경쟁이 배제됨으로써 외환시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방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는 달러화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각국의 환율은 달러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상하 1% 이내에 고정되며 달러화는 금 1온스=35달러로 교환되도록 정하였다.

IMF가 국제유동성 공급능력을 증대하고 탄력성을 부여했지만, 세계무역의 균형적 확대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충분하게 실현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세계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미국의 국제수지 불안정, 금 유출, 달러 가치 동요에 따른 국제유동성의 질적 악화, 금 생산의 한정성 때문에 국제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IMF 개조를 둘러싸고 광범한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연구소 1965, 351).

GATT는 1947년 미국 주도로 23개국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해 제거를 목적으로 교섭을 벌인 결과 도출한 협정이다. GATT는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최혜국 조항을 두어 개발도상국들이 도입한 차별대우를 비롯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특혜적 무역협정도 금지하였다. 한편, 무역의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그것을 협정 체결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국제수지상의 곤란이나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요구 등 많은 예외 규정이나 조치를 설정하였다.

GATT는 협정 체결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이들 국가들이 추구한 통상정책도 다양하였지만, 이 협정이 설정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 뒤 관세인하 교섭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50%의 관세인하를 단행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여 성립된 IMF—GATT체제가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건과 새로운 전개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럽부흥계획은 서유럽 국가들이 전후의 위기를 딛고 자본주의 재건과 부흥을 실현할 수 있게 한 지렛대 구실을 하였다. 유럽부흥계획은 전후에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대해 행한 대외원조계획으로서, 1948~1951년 사이에 미국이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마셜플랜에 서명하는 트루먼 대통령

를 통해 유럽에 제공한 원조액은 모두 112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1951~1953년 사이에 미국은 26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을 추가해 유럽 국가들에 제공하였다. 마셜 플랜은 대부라기보다는 원조의 성격을 띤 정책으

로서 달러 부족에 허덕이던 유럽 자본주의 재건을 위해 전략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삼아 1951년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MSA)’을 제정하여 군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를 시도하였다.

마셜 플랜이 투자촉진, 수입 증가, 인프라 재건 등에 끼친 영향도 컸지만, 그 보다는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견해도 있다. 서유럽 사람들이 파멸의 위기감에 빠져 유럽의 미래에 대해 크게 비관하고 있을 때 미국의 원조 약속은 안정과 장기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양동휴, 2006: 170). 다시 말하면, 전후 동유럽 사회주의화의 물결과 구 식민지에서 전개된 민족해방투쟁 격화,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세력 확대 등에 따른 체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한 것이 마셜 원조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대근 1993, 192~19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정세 변화에 따라 세계자본주의체제는 각국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과 경제·정치적 불균등성을 드러내면서 재편되었다.

두 번째는 식민지 지배체제 붕괴와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전제조건 조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의 실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조직된, 그리고 광범위한 규모의 민족해방운동 전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 존속해온 식민지 지배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종속국가들이 잇따라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였다. 이들 국가의 정치적 독립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1945~1949년 기간으로 이 시기에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14개국이 독립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1960~1962년 기간으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28개국이 독립하였다(김종현 2007, 532).

대전 이후, 인민들이 전투행동을 벌였던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구질서를 부활하려고 시도한 식민지 영유국의 기도는 어디서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때로는 식민지 인민의 무력항쟁까지 불러일으켰다. 인도, 버마,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이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1945년에 인도네시아, 1947년에는 인도의 독립이 선포되었으며, 1949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가 반식민지 투쟁의 무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투쟁의 대부분은 식민주의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제권력까지 투쟁 대상으로 삼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70 4).

식민지 지배체제의 붕괴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 변화를 촉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생 독립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추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생 독립국가들은 세계 전역에서 정치적인 해방이 완수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자연자원이나 경제 수단에 대한 지배권을 되돌려 받고자 하였다. 앞의 사례로는 1951년 이란 석유의 국유화를 들 수 있고, 뒤의 사례로는 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들 수 있다. 이른바 ‘제3세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종속국 상태에서 파행적(跛行的) 경제구조를 장기에 걸쳐 지속해온 구 식민지 국가가 정치적 독립을 실현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룩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들은 경제 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차원에서 경제관계를 유지·확대하였다. 한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신생독립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 ‘신식민지’ 문제나 ‘종속’

문제, 그리고 ‘남북문제’가 제기되었다(김종현 2007, 533).

세 번째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블록의 형성이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계기로 지구상에 대두하였고, 그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상품수출시장, 원료 공급지 그리고 자본수출 대상으로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해 왔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체제가 그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는 그 때까지 소련 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큰 편이 아니어서 그 영향력도 강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에서 갖는 소련의 지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은 소련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였고, 한 때는 유럽 지역에 속한 소련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전쟁 국면은 전환되었고, 소련은 1944년 가을 전 영토를 완전히 탈환하였으며 소련의 붉은 군대는 독일군과 그 동맹군을 격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은 파시스트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상황은 독일군과 소련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들이었다.

한편, 1944년 3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동유럽국가들(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은 소련군의 진주(進駐)와 자체의 저항운동이 호응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독일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독일군이 퇴각하는 가운데 국내의 사회주의 세력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방을 전취하였다. 이들 동유럽 7개국 가운데 헝가리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독일과 동맹관계에 있던 추축국이었기 때문에 1947년 2월 파리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련이 관리하였다. 또 폴란드에는 소련군의 주둔이 계속되었다. 얄타협정은 이들 국가에서 자유선거를 통한 신정권 수립을 약속하였다.

1947년 초까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연립 또는 연합의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른바 ‘공산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들 정권은 공통적으로 ‘인민민주주의’⁵⁾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블록이 형성

5)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은 인민민주주의를 서유럽형 의회제 민주주의나 일당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소련형 민주주의와는 다른 독자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27~28, 33).

한편, 전후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정치의 주류에 합류하게 된 것은 특징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1941년 이전까지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45년 가을부터 1946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등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구성이 일반 투표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1945년 10월 프랑스 제헌의회 선거 74.9%, 1946년 6월 이탈리아 선거 74.6%, 1946년 2월 벨기에 선거 86.8%, 1946년 5월 네덜란드 선거 72% 등이 그러하다.

공산주의 정당들은 어디서나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득표를 하였다. 프랑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가장 강력했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였다. 공산당의 경쟁자는 새롭게 등장한 보수 세력,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었다. 드골과 제휴한 프랑스의 인민공화운동,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 네덜란드의 가톨릭인민당 등이 그

러한 정당이다. 그리고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사회당), 벨기에 사회당, 네덜란드 노동당 등이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였다(일리 2008, 530~532).



노르웨이 레지스탕스 영웅 막스 마누스를 그린 영화(국내 미개봉)

공산당 세력이 이와 같이 정치의 주류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파쇼 레지스탕스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특별하게 컸고, 그 결과로 전쟁 동안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홉스봄은 공산주의자들이 레지스탕스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주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애국적 요구보다도 반파쇼적인 호소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채택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새로운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적들조차 감동시킨 용감성, 자기희생, 그리고 과단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Hobsbawm 1996-3, 167).

〈표 1-2〉 전후 첫 번째 선거에서 공산당이 획득한 득표율

국가	선거 연도	일반득표율(%)
오스트리아	1945	5.4
벨기에	1946	12.7
체코슬로바키아	1946	37.9
덴마크	1945	12.5
핀란드	1945	23.5
프랑스	1946	26.0
독일연방공화국	1949	5.7
헝가리	1945	16.9
아이슬란드	1946	19.5
이탈리아	1946	19.0
룩셈부르크	1945	13.5
네덜란드	1946	10.6
노르웨이	1945	11.9
스웨덴	1944	10.3
스위스	1947	5.1

자료: 일리 2008, 531.

이와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독자적인 형성과 세력 확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대립 심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들어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對)소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침 그러한 때, 주(駐)소련 미국 대사관 대리대사였던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1946년 2월 본국에 타전한 장문의 전보에서 소련의 국가 본질은 ‘러시아 제국(帝國)의 전통·본능적 불안감’을 계승한 것이며, 병적인 안전보장의식에 근거하여 조성된 팽창주의라고 표현하였다. 케넌의 팽창국가라는 설명은 소련에 대해 강경론에 기울어져 있던 정부 관료들의 소련에 대한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전보야 말로 미국의 대소 강경노선을 부추긴 ‘냉전’⁶⁾의 시발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6)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 외교가 버나드 바루크(Bernad Baruch)가 1948년 10월 사우스캐롤

같은 해 3월 미국을 방문한 처칠이 미주리 주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발트 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 해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있다”고 했다. 그는 소련의 움직임이 팽창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로부터 8일 후, 스탈린은 처칠을 ‘전쟁도발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1947년 3월 12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은 ‘그리스—터키 원조법안’ 승인을 위해 특별교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이라 불렀다. 그 요지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당시 공산주의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反共) 정부에 대하여 미국은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그 후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유럽부흥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구체화되었다.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중인 해리 트루먼 미국대통령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을 바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여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격심한 대립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냉전’을 공식 표명한 선언이었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동유럽과 프랑스·이탈리아 공산당과 더불어 1947년 9월 코민포름⁷⁾을 결성하였다. 결

라이나 주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으나, 우리는 지금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냉전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한 것이 널리 퍼졌다.

7) 코민포름(Cominform)은 "Communist Information Bureau"(공산주의자 정보 기구)의 약칭이다. 1947년 9월, 바르샤바에서 소련 공산당 주도로 유럽의 9개국 공산당이 참가하여 창설한 공산주의 국가의 정보국이다. 참가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9개국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반공 체제와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행동의 통일, 경험·정보 교환, 활동의 조정을 위하여 코민포름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성회의에서 코민포름은 트루먼 독트린이나 마셜 플랜을 통하여 세계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민주주의적’ 진영과 소련을 지주로 하는 ‘반제국주의·민주주의적’ 진영이라는 화해할 수 없는 진영으로 나누어졌다고 선언했다(오쿠 야스키 2009, 42~43). 냉전이 현실로 대두된 것이다.

〈표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 양상

	식민지 해방	자본주의 진영	동서관계	사회주의 진영
1943	미·영·중의 도움으로 조선 독립 약속	케인스안·화이트안 제기. 연합군 이탈리아 상륙		코민테른 해체
1944	브라자빌 회의, 이스티크랄(Istiqbal)선언	연합군 프랑스 상륙.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회의		불가리아와 헝가리에 소련군 진주
1945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선언. 베트남 8월 혁명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 독립 선언, 라오스와 캄보디아 독립선언. 콘스탄틴과 세티프 등장(알제리). 리비아에 대한 탄압과 국가수립, 시리아와 레바논 독립,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창설	연합군의 서유럽 진격. 영국 노동당 정부 성립.	미·영·소 3국 수뇌 알타회담과 알타협정 성립. 포츠담회담과 포츠담 협정 체결. 미군 남조선 진주, 소련군 북조선 진주. 미·소군 독일 대치. 미국 히로시마에 핵폭탄 투하. 파리에서 세계노련(WFTU) 결성. 국제연합 유엔헌장 채택.	소련군 서유럽 진군.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대독 인민봉기. 유고슬라비아가 연방인민공화국 선언. 루마니아에서 민족민주전선 정부 성립. 폴란드 임시정부 성립.
1946	중국 국공내전 시작. 프랑스군 퉁킹만 진주. 영국군 인도네시아 진주. 영국 트랜스 요르단 독립 승인. 필리핀 공화국 독립.	그리스 내전 시작. 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제1회 유엔 총회. 미국 비키니 해안에서 원자폭탄 실험.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선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민족전선내각 성립.

	<p>프랑스—베트남 협상 실패. 인도차이나 전쟁 발발. 네덜란드—인도네시아 협정 체결.</p>			<p>불가리아 인민 공화국 선언.</p>
1947	<p>마다카스카르 폭동. 네덜란드 자와에서 군사작전 실시. 인도 연방과 파키스탄 자치령이 분리. 프랑스 통킹만 공세. 버마 민주공화국 독립 선언.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성립. 실론 독립. 인도차이나 전쟁 (계속).</p>	<p>트루먼 독트린 선언. 마셜 플랜 발표. 벨기에·프랑스·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공산주의자 배제, 그리스에서 국민해방전선이 자유그리스 정부 수립. 미국 뉴욕주·브라질·그리스에서 공산당 불법화.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미국 원조 법안 채택. 미국 파업규제법 제정. 프랑스 노동총동맹(CGTT)과 노동자의 힘(FO)분열. 핀란드와 노르웨이 선거에서 공산당 참패.</p>	<p>코민포름 발족</p>	<p>폴란드 인민공화국 성립,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성립.</p>
1948	<p>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탄생. 네덜란드·인도네시아 휴전. 간디 암살당함.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 자치령 수락. 제1차 중동전쟁.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 대한 재개입. 인도차이나 전쟁(계속).</p>	<p>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T) 분열.</p>	<p>소련 베를린 봉쇄 시작.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p>	<p>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정권 장악. 비공산주의 계열 장관들 사포 제출. 티토와 코민포름 사이의 불화. 유고슬라비아 코민포름에서 축출. 동베를린 폭동 발생과 소련군 군중을 향해 발포. 헝가리 민첸티(Mindszenty) 추기경 체포. 중국 공산주의자</p>

				진군.
1949	네덜란드 자카르타에서 철수.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가 창설. 리비아 독립에 관한 유엔 투표. 인도차이나 전쟁(계속). 라오스와 캄보디아 독립협정 체결. 베트남 국가 창설(바오다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이 북대서양 조약(NATO) 체결.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수립. 서독일 정식 발족. 공산주의 또는 옹공경향의 가톨릭 신자 파문. 미국 내 공산주의 활동 탄압. 장제스 대만 정부 수립.	베를린 장벽 철거. 국제자유노련(I CFTU)결성.	소련 원자폭탄 보유 사실 발표. 헝가리 인민공화국 수립.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소련 장성 폴란드 국가수뇌에 임명. 코메콘 창설.
1950	아이보리코스트(지금의 코트디부아르) 폭동. 인도차이나 전쟁(계속)	유럽경제동맹제도, 반미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미국 매카시 선풍. 그리스 내란 종식.	한국전쟁 발발. 중국·소련 우호동맹상호원 조조약 조인. 미국 수소폭탄 제조 결정.	오데르·니제 국경에 관한 동독-폴란드 협정.
1951	이란 석유 국유화 선언. 카사블랑카 폭동. 수에즈 운하 지대의 반영 폭동과 영국 군사 개입. 리비아 독립. 인도차이나 전쟁(계속).	유럽 철강·석탄 공동시장 설치. 미·일 평화·동맹 협정 체결.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NATO 가입 권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평화조약과 일본·미국안보 조약에 조인. 한국전쟁(계속).	프라하 슐란스키 체포. 중국 티베트 간섭.
1952	튀니지 폭동과 파업. 공산주의자 탄압. 이집트 카이로 유혈 폭동과 나기브 권력 장악. 케냐 마우마우(반영 민족주의 비밀결사)에 대한 경계대세. 영국·이라크 외교관계 분열. 모로코 카사블랑카 폭동. 인도차이나 전쟁(계속).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 SC) 조약 조인. 유럽 6개국 유럽방위공동체(EDC) 조약 조인. 연합국과 서독 사이 본 협정 체결. 영국 첫 핵실험.	한국전쟁(계속)	
1953	모로코 국왕 폐위. 모사데크 실각과 이란에 대한 미국		미국 최초의 핵탄두 실험. 한국전쟁 휴전.	스탈린 사망. 소련 수소폭탄 보유 사실 공표.

	원조 실시. 카사블랑카 대공세. 인도차이나 전쟁 (계속).		소련 수소폭탄 제조 선언. 중국 공산당 유엔 가입 거 부.	헝가리 라코시퇴진과 나지 권력 장악. 동독 파업과 시위.
1954	디엔비엔푸와 제네바에서 인도차이나에 관한 협상. 나세르 이집트 평의회 의장 취임과 나기브 퇴 진. 튀니지 국내자치원칙 시행.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 결성, 무장봉기. 네덜란드·인도네시 아 연맹 폐기. 알제리 오레스에서 폭동 발생. 알제리 전쟁 발발. 케냐 마우마우 봉기.	미국 일본과 파키스탄 그리고 대만과 군사협정 체결. 마닐라 회의에서 SEATO (동남아시아조약기 구) 구성. 유럽방위공동체 설립 실패와 서독의 NATO 가입.	미국 비키니에서 수소폭탄 첫 실험.	
1955	카사블랑카 공세와 모로코 왕정복고. 바그다드 조약기구 발족. 알제리 전쟁 (계속). 아시아·아프리카 반동회의.		4대 열강 제네바 회의 개최.	소련 동유럽 8 개국과 바르샤바 조약에 조인.
1956	모로코, 튀니지, 수단, 말레이시아, 가나 등 독립. 실론 민족연합전선 내각 성립. 나세르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과 영국과 프랑스 개입. 제3차 중동전쟁 발발. 알제리 전쟁(계속)	미국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종결 압력 행사.		흐루시초프 20차 당 대회에서 스탈린 비판 비밀 보고서 제출. 코민포름 해산. 소련 탱크 폴란드 군중에 대한 발포. 고물카 복귀. 라지크 복권. 헝가리 폭동. 소련 탱크 부다페스트 진 주.

자료: 보 1987, 273~275, 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연표 2~6.

2. 노동운동 동향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됨에 따라 국제노동운동은 비약에 가까울 정도로 고양되었으며, 이전까지의 세계노동운동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 발전은 전후에 조성된 역사적 시기의 특수성, 즉 국제노동운동의 시대적 활동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노동운동 앞에 제기되는 임무가 대단히 중대하고도 다양해진 데 따른 결과였다.

전후 노동운동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세계자본주의체제로부터 이탈한 국가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활기차게 추진하였고 동유럽 국가들이 인민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을 한층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맹렬하게 진행하였다. 더욱이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거나 연립정권을 구성했는가 하면 의회에 의원단을 진출시켰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적 통제 장치들이 위력을 잃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변화는 노동운동 발전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전 양상은 노동자계급의 생활과 투쟁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의 다양성, 각 지역과 각 국가에서 형성되는 조건의 상이, 그 밖의 여러 가지 내용과 성격의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에 따라 불균등성과 다양성을 나타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24).

여기서는 먼저 국제노동운동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몇 개절에서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전후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 발전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국가권력과 자본가 세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억압과 통제를 행사하고자 하였다. 서유럽의 경우, 영국과 미국 주둔군이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억압행위를 가했으며, 반동세력과 부르주아지를 고무하기도 하였다. 서유럽의 진보세력은 전쟁 기간이었던 1944년, 영국군이 그리스에 직접 개입하였던 일⁸⁾을 결코 잊지 못한다.

8) 영국군이 그리스의 레지스탕스 운동 조직의 권력 탈취에 반대하여 왕정을 지지했던 일을 말한다. 1944년 12월에 그리스가 해방되면서 그리스 국토 대부분을 군사적으로 장악한 인민해

서독의 경우에는 전후 초기 권력기관이었던 미국·영국·프랑스 점령당국이 파시즘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자유를 되살렸으며, 나치와 나치에 결합하였던 독점자본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점령군 당국은 노동자계급의 운동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했으며, 부르주아지가 자기세력을 정비하고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점령군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아 서독에서는 부르주아 대중정당이 새로 창립되었다. 전후 초기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독점부르주아지에 대한 점령당국의 비호정책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 점령 지역 이외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노동운동의 비약적 발전에 대해 당혹과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과 자본가계급이 노동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개입과 통제, 그리고 억압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운동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경계하는 국가권력과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제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방편이었다.

한편, 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성장·발전함에 따라 세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방대한 예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몇 세기에 걸쳐 축적한 부를 비롯하여 과학과 기술발전의 성과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점할 가능성, 다국적 기업으로의 경제력 고도 집중, 독점체와 부르주아 국가 사이의 역량 결합 등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또 여러 해 동안에 걸친 정치적 책략 경험, 주민 가운데 후진적 부분의 무지와 편견 이용, 혁명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의 악용, 제2차 대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그 밖의 침략 블록 창설에 따른 미증유의 국제적 자본력의 결합, 서유럽의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그 밖의 각종 제국주의 간섭기구의 반혁명 행동 등이 모두 자본가계급의 힘을 뒷받침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24).

이와 같이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황판단을 아주 어렵게 하였고, 노동운동 발전과 관련하여 복잡한 과제를 제기하였다.

노동운동 발전에서 제기되는 최대의 과제는 무엇보다 국가권력과 자본 측의 통제·지배에 대한 계급적 대응이 되겠지만, 이런 과제 말고도 노동자계급이 지닌 정치적 자각과 정치적 경험의 차별성과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일이 주체적인 당면

방전선(EAM)은 영국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정부와 대립하였으며, 수도 아테네를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패배하였다.

과제로 긴요하게 제기되었다. 노동자계급 사이에 자본주의 현실이 불리일으키는 편견과 환상, 즉 부르주아지의 강력한 선전기관이나 부르주아 정당과 사회개량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편견과 환상이 전쟁 기간에 조성된 참혹한 사건들과 연계되어 여전히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용이한 과제는 아니었다.

또 노동자계급 사이에는 특히 전쟁이 가져다준 폐해가 심각했던 경우에 ‘혁명적 조급성’이 넓게 파급되었는데, 노동운동은 이러한 경향을 극복해야만 했다. 전쟁 기간과 전후에 일부 저항운동 참가자들 사이에 퍼져있던 극좌적 견해의 근저에는 파시즘 붕괴가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안팎의 정세 판단을 잘못된 데서 비롯되었고, 이것은 ‘막연한 믿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파시즘에 대한 승리는 반드시 전쟁, 빈곤, 노동자 착취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줄 것이며,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르주아 지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끝낼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행복한 기대’는 엄중한 현실에 부딪쳐 좌절하게 될 경우, 바로 실망하여 승리의 결과에 대한 환멸을 낳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무경험은 전쟁과 궁핍이 낳은 무관심이나 피로감과 결합되어 무력함과 자포자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이용한 것은 교회 세력이었다. 전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계 종교 정당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과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중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45).

이와 같은 중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조직력 확대·강화와 노동운동 각 부문 사이의 굳건한 단결, 그리고 노동자 정당의 통일 촉진, 민주주의와 전체 인민의 이익 수호를 위한 단호한 옹호자로서의 사명 이행, 국제적 단결과 연대의 강화 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후 초기 노동운동의 전개 동향을 개괄해서 살펴본다.

이전의 추축 국가

먼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에 속했다가 패전국으로 전락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노동운동은 그 전개양상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운동의 부활과 재

건을 빠르게 이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 파쇼체제가 궤멸하자 노동자계급은 국가기구와 다름없었던 '노동전선'에서 탈퇴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재조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1946년 당시 200만 명에 이르렀으나,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지구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 정책이 노동조합운동 재건을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서독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조직체계도 직능별 조직을 배제하고 체계적인 산업별 조직 형태를 추구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운동은 주요 산업의 사회적 소유와 경제 관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등한 참가 등 경제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노동자 생활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은 1943년 연합군의 이탈리아 진주와 더불어 재건이 추진되었고, 1944년 6월에는 '노동조합 통일 실현에 관한 선언—로마협정'이 체결되어 노동조합운동 통일이 이룩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통한 국가 경제생활의 철저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경제재건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파업투쟁을 자제하였다.

일본 노동조합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급속하게 고양되었으며, 그것은 전쟁 이전 어느 시기보다 한층 더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노동조합운동은 대규모의 급속한 조직화를 달성하였다.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일본 특유의 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였고, 노동조합전선은 이탈리아의 경우와는 달리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형성되었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1945년 말부터 1946년에 걸쳐 대단히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생산관리투쟁'을 벌였으며, 이 생산관리투쟁은 생산부흥 요구와 함께 민주화 요구와 같은 대중적 정치투쟁과 병행하여 펼쳐졌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점령 상태에 있던 국가들이었다. 독일 지배 상황에서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이 물러나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들이 빠르게 복구되었으며,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조직 확대와 활동의 적극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당운동에 대해서는 연합군과 보수정치세력, 그리고 바티칸(가톨릭)이 억제조치를 취했다.

이전의 연합국가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가에 속하였던 영국, 프랑스, 미국을 포함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 동향을 살펴본다. 영국은 전쟁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파시즘의 침략을 직접 겪지는 않았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일정 수준의 조직역량을 보존하였으며, 전후에는 조직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은 제3차 노동당 정부의 성립을 뒷받침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철강, 운수, 석탄, 전기, 가스 등의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당 정부의 경제부흥 정책은 임금동결을 비롯한 노동자계급의 희생 위에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불만은 결국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전후 프랑스 노동운동의 출발점은 전쟁 기간에 전개된 저항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으며, 1944년 9월 노동조합운동은 드디어 합법성을 획득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고 노동자와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은 주요 산업과 부문을 국유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 생산관리를 위해 공장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노동자평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자 경영참가가 추진되었다.

미국 노동조합운동은 1945년 가을, 전쟁 종료와 더불어 유례없는 조직 발전을 이



국제자유노련(ICFTU) 총회

룩하였다. 이러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은 반공주의를 지향하면서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와 대립하였다. 미국 노동조합운동은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국제반공 정치전략을 선도하였던 미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노련(ICFTU)을 결성하여 국제반공 노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반노동자입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제도 장치 구실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의 4분의 3이 미국의 노동조합과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미국 노동조합운동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이 반동적인 미국 노동조합 지도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를 정치·경제적으로 종속화하려는 제국주의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돕는 일이 되었다(Foster 1956, 438~439).

영국 연방국가에 속했던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운동은 100년도 더 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후 주 40시간 노동일제를 획득할 정도로 강한 투쟁력을 발휘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운동은 65%의 높은 조직률을 보였으며, 네덜란드 제국주의에 대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저항과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지할 정도로 국제연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운동도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높은 조직률을 과시하였으며, 주요 산업 국유화를 요구하였다.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 노동운동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 즉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헝가리, 알바니아 등에서는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이 히틀러 파쇼세력과 지난날의 착취세력을 축출하고, 공산당과 노동자당의 주도로 인민전선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45).

동유럽의 경우, 독일 나치 점령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운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1947년 말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농민, 그 밖의 반파시스트 세력 층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직 확대를 성취하여 적어도 1,700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게 되었다(Foster, 1956: 411).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은 통일된 단일 조직체계와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채택하였으며, 현장 단위에서는 노동자평의회 또는 공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재건을 위해 사회주의 특유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국가 경제기관이나 국유산업에 노동조합 대표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시설을 운영하였다.

아시아 국가

전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노동조합운동은 급속하고도 거대한 성장을 이룩하였

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보잘 것 없는 조직에 지나지 않았으나,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아시아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은 조직노동자 2,000만 명을 포괄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세계노동조합운동의 최전선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노동운동 발전에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 일이었다.

중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을 기본 임무로 설정했으며, 혁명 이후에는 생산증강과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도의 노동조합운동은 전쟁 기간과 전후에 인도의 독립과 노동자계급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든 투쟁을 계속하였다. 새로운 인도 자치령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노동조합운동은 공업 국유화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도 민족해방운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전후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들 국가의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조건에서 전개되었으며, 때로 무장투쟁으로 전화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도 함께 진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측면에서나 투쟁 측면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적 요구와 함께 정치적 요구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쟁 기간에 ‘라틴아메리카노동총동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América Latina: CTAL)’은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의 지도적 중심 역할을 행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의 지도체로서 위상을 보유한 채, 종전을 맞이하였다. CTAL은 미국의 끈질긴 와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의 통일행동과 다가올 노동조합운동 전체의 조직적 통일을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폈다(Foster, 1956, 479~480). 전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한층 더 강화된 조건에서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은 대규모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집회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치 뒷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였던 혁명운동을 예비라도 하듯 과감한 투쟁들이 잇따라 전개되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직면하였고, 전후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와 기생 자본가들을 물리치고 민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이 새로운 조건에서 전개되었다.

전후 아프리카의 노동조합운동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기본적인 주택문제와 교육문제 해결, 사회보장제 시행, 인종차별 철폐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추진해야만 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 노동조합운동의 연대 활동이 폭 넓게 펼쳐졌다. 1947년 10월 아프리카 노동조합회의가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노동자 80만 명을 대표하는 21개 조직에서 6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단계 세계노동운동 동향을 개괄하여 살펴보고자 하니, 전후 노동운동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의 통합과 협력에 관해 살펴본다.

전후에 노동운동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노동자 정당의 통합 또는 결합 문제였다. 실제로 공산당과 사회당의 통합에 관한 구상은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그 밖의 몇몇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서독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1945년 7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협력관계를 수립하였고, 파시스트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 기아·경제공황·실업 해소와 정치 민주화, 민주적 가치관 수립, 인민대중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강령 내용으로 하여 행동통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4~1947년에 걸쳐 사회당과 공산당 사이에 존재하였던 협력관계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행동통일협약을 통해 정착된 협력관계가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고, 노동운동이 흔히 모범 사례로 드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였고,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통일과 다양한 형태의 일상투쟁에서 행동통일 강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5).

전후 노동운동 동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문제이다. 자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마크

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통일성, 활동과 투쟁, 그리고 의식성 향상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적 결합의 확대·강화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다. 1945년 9월 말에 이루어진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결성은 56개국의 조직노동자 6,700만 명을 대표하는 346 명이 모여 만든 결사체로서 대규모 프롤레타리아 연대조직이라는 점에서 국제노동운동 통일 대열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대회에서 채택된 헌장은 세계노련의 활동원칙,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긴밀한 상호원조, 경험교환과 활동의 상호존중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 헌장은 또 세계노련의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연맹은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조에 관계없이 전 세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는 그 결성에 협력하고 모든 파쇼적 정치형태와 파쇼 움직임을 절멸하기 위하여 투쟁함과 동시에 전쟁과 그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하고 경제·사회적 권리와 민주적 자유를 수호하며 모든 노동자의 통일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계노련과 진보적인 국제노동운동 세력이 취한 국제주의 노선은 전후 새로운 국제정세에서, 더욱이 민족해방운동이 점점 고양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행하였다. 전후 초기에 몇몇 식민지·종속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한 것은 제국주의 식민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 되었고, 제국주의 본국의 노동운동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7~39).

<참고문헌>

김종현, 2007, 『경제사』, 경문사.

양동휴, 2006, 『20세기 경제사』, 일조각.

이대근, 1993, 『세계경제론—글로벌화와 국민경제』, 까치.

하마바야시 마사오(浜林正夫).키무라 히도수케(木村英亮).사사키 류우지(佐佐木爾), 1996, 『新版 前後世界史 上』, 大月書店.

오사카시립대학경제연구소 1965, 『경제학사전』岩波書店(일본).

오쿠 야수키(奥 保喜), 2009, 『冷戦時代 世界史』, つげ書房新社.

시오다 쇼오베에(塩庄田兵衛), 1964, 『日本労働運動の 歴史』, 労働旬報社, 우철민 옮김, 『일본노동운동사』, 1985, 동녘.

Alexandrov, V., 1986, A Contemporary World History 1917~1945, Progress Publisher, 홍성곤.박용민 옮김, 1990, 『세계현대사』,태암.

Beaud, Michel, 1981, Histoire du capitalisme: 1500~1980, Éditions du Seuil, Paris, 김윤자 옮김, 1987, 『자본주의의 역사』,창작사.

Eley, Geoff, 2002, Forging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유강은 옮김, 2008,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좌파의 역사』,뿌리와 이파리.

Foster, William Z. 1956, Outline History of the World Trade Union Movement, International Publishers.New York, 정동철 옮김, 1986, 『세계노동운동사 I,II』, 백산서당.

Hobsbawm, Eric, 1996—3, The Age of Extremes—A History of The World, Pantheon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이용우 옮김, 1997,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상, 하』, 까치.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The Institute of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 1987,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Problems of History and The ory, Volume 6, Progress Publishers Moscow.